

김기현, 국힘 대표직 사퇴...“당 안정·총선 승리 이바지”

당권 거머쥔 지 9개월만에...“당 상황 책임·비판 오롯이 나의 몫” 당분간 ‘윤재옥 권한대행’ 체제...민주 “바지 대표 사퇴 의미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이후 출범한 혁신위원회와의 갈등, 낮은 지지율과 ‘수도권 위기론’ 등에 대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나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나의 몫”이라며 “더이상 나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견마지로를 다 하겠다”며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 사퇴로 당분간 윤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 대표 사퇴에 앞서 ‘진윤(진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의원의 지원을 받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모든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지 대표로 뽑힌 김 대표는 용산의 지시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와 김 대표의 사퇴 뒤에는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다”며 “김 대표의 사퇴는 용산 직할 체제가 가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 사퇴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지정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 50% 밑으로

‘산업 공급망 3050전략’ 발표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특수 가스부터 수급 불안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같은 범용 상품에 이르기까지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춘다.

경제성이 없어 국내 생산을 하지 않는 요소 같은 상품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 분야 자립화를 밀착 지원하는 등 자립과 촉진을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 중에서도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이차전지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영구자석 등 8대 분야는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따로 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에서 방문규 산업부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와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했다. 작년 평균 70% 수준인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은 첨단 전략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주력·신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로봇, 항공), 기초 소재 산업(금속, 섬유, 세라믹, 화학) 분야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내은 등 반도체 제조용 희귀 가스,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 전자 모터 제조용 희토류 영구자석,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요소, 마그네슘과 등 첨단 부품·소재에서부터 광물, 범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전문가 100여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수입 의존도 50% 이상인 1천719개 품목을 우선 추려낸 뒤 국내 산업 영향, 대체 가능성, 수급 전망을 고려해 185개 품목을 선정했다.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 제3국 수입 운송비 지원이 최근 결정된 것처럼 수입 다변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수입 보험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 품목’이 새로 추가되고 보험 한도도 1.5배 우대되는 등 수입 다변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안철수, ‘힘지 차출’ 선긋기...분당갑서 4선 도전 시사

“힘지 가면 다른 사람 못 도와줘”

국민의힘 안철수(3선) 의원이 13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중진의원 힘지 차출론’에 선을 긋고 현 지역구인 분당갑에서 4선에 도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힘지라고 (나를 그곳에 가게)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제원 의원 불출마로 안 의원에게도 힘지 출마 압박이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분당갑에 다시 출마해 전국 단위의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작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재·보궐 선거를 치렀는데 나는 내 지역구만 유세한 것이 아니고 13일 동안 50회 외부 지원 유세를 하러 다녔다. 얼마나 했으면 다음 날 기절까지 했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면 국민들이 알아보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지원 유세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런 역할을 했고, 올해도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 “장 의원의 결심이 밀려들게 차가운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저는 당이나 정부에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與 당협위원장 3인, 86 운동권 저격 책 출간

서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젊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야권 주류인 ‘86세대 운동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을 함께 출간해 눈길을 끈다.

자신들을 ‘서울 동부벨트 청년 당협위원장’으로 칭하는 이재영(강동을)·이승환(중랑을)·김재섭(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이거 정치: 86 운동권이 뻗어간 서울의 봄’을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86’이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학생 운

동권 출신을 칭하는 조어다.

애초 이들이 30대일 때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이라는 조어로 시작했는데, 당시엔 ‘386 컴퓨터’가 최첨단, 젊음, 혁신 등을 상징해 기성세대와 차별화한다는 의미에서 ‘386 세대’임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들이 40대, 50대가 되면서 ‘486’, ‘586’ 등으로 용어를 바꿔오다 서서히 60대 나이로 접어들자 맨 앞 숫자를 스스로 뺐다.

이들 당협위원장은 책에서 86세대가 주도해 온

이념정치, 집단정치에서 벗어나 지역구 중심의 실용 정치를 세 보수의 길로 제시하고, 개인의 정치와 이기적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책 출간 기념 합동 북콘서트를 연다.

북콘서트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정병국 전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한다. 대통령실 전직 행정관들과 더불어민주당 권지용 전 비상대책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여야 청년 정치인들도 참석한다. 앞서 이들 3인은 아차산, 북한산 등 서울 동북부 산 다섯 곳을 하루에 중주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